

최고참 백업, 잠실을 호령하라



KIA 타선의 두 축인 이범호와 안치홍의 부상으로 내야의 두 자리가 비게 되면서 이 공백을 메워줄 이들의 성적이 관심사가 됐다. 정성훈이 타격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정성훈, 이범호 빠진 3루 투임...안치홍 자리엔 황윤호·홍재호

선두 두산과 시즌 첫 대결...임기영, 선발 마지막 퍼즐 맞추려 출격

‘새로운 얼굴’들이 열쇠를 쥔 잠실 원정길이다. KIA 타이거즈가 20일부터 잠실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 원정 3연전을 치른다. 이번 시리즈는 ‘다들딩 챔피언’과 ‘현재 1위’의 두 팀이 2017 한국시리즈 이후 처음 맞대결을 갖는 무대다. 시즌 초반 두 팀의 표정이 엇갈렸다. KIA는 ‘우승 멤버’ 그대로 2018시즌을 열었지만 초반 흐름이 좋지 못했다. 들쭉날쭉한 타선의 움직임 속 어깨 부상의 임기영이 빠진 선발진에서는 4·5선발이 고전했다. 4연승 뒤 4연패를 기록할 정도로 극과 극의 행보를 하고 있다. 반면 두산은 시즌 전 쏟아졌던 우려를 뒤로하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FA로 민병헌이 이적했고, 세 명의 외국인 선수를 모두 교체하면서 전력에 물음표가 남아 있었다. 여기에 외국인 타자 파레디스가 극심한 부진으로 2군에 다녀오기도 했지만 두산은 ‘화수분 야구’로 변함없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KIA는 주말 3연전을 한승혁-임기영-조반 다른 모습의 두 팀의 첫 만남. KIA

에는 악재와 변수가 함께 하는 원정길이다. 덕아웃 리더 이범호에 이어 1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하던 안치홍이 지난 18일 LG와의 홈경기에서 월슨의 공에 맞아 왼손 검지 중수골 미세 골절 부상을 입었다. 이범호와 안치홍의 부상으로 내야의 두 자리가 비게 되면서 이 공백을 메워줄 이들의 성적이 관심사가 됐다. KIA는 19일 안치홍을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홍재호를 불러들여, 이날 2루 자리를 맡겼다. 그리고 3루에는 올 시즌 LG에서 친정으로 돌아온 정성훈을 세웠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해 NC에서 KIA로 건너온 황윤호도 전전후 내야수로 내야 공백에서 기회를 노리는 등 새 얼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새 얼굴들의 움직임에 KIA 타선의 성적표도 달라진다. 타선의 두 축이 빠진 타선과 함께 두산의 막강한 타자들과 맞설 선발진도 예측 불허다. KIA는 주말 3연전을 한승혁-임기영-조반 다른 모습의 두 팀의 첫 만남. KIA

시즌 첫 등판에서 4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며 선발 기회를 잡은 한승혁은 첫 선발 출격에서 5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유의 강속구에 커브 그리고 제구를 더하면서 선발진에 힘을 불어넣었지만 오랜 휴식이 변수다. 한승혁은 지난 10일 한화와의 경기 이후 휴입상태다. 두 차례 경기가 취소되면서 등판 날짜가 변경됐다. 10일 만에 마운드에 오르게 된 만큼 한승혁의 초반 경기 감각이 이날 경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선발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출격하는 임기영을 향한 시선에도 기대와 걱정이 함께한다. 생애 첫 한국시리즈 무대에서 승리투수가 되면서 KIA 선발진에 무게를 실어줬던 임기영이지만 부상으로 시즌이 출발이 늦어졌다. 두 차례 퓨처스 등판을 소화한 뒤 두산을 상대로 복귀전에 나서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 투·타의 새 얼굴들이 KIA의 고민을 지워줘야 할, 험난한 주말 3연전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승 김윤동 “그렇게 하고 싶을 땐 안되더니”

덕아웃 T 특특

▲나이드 많은데 웃고 있어야죠 = 유쾌한 ‘야수 최고참’ 정성훈이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LG에서 방출됐던 정성훈은 올 시즌 친정인 KIA로 돌아와 20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다. 덕아웃에 있을 때는 물론 훈련을 하면서도 늘 밝은 표정인 그는 “항상 즐겁다. 내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 밝게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6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한 그는 수비도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정성훈은 “어깨가 좋지 않아서 그동안 던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오랜만에 3루에 서면서 공에 바로 반응이 될까 걱정도 했는데 많이 적응됐다. 어깨도 좋아지고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잘 한 뒤에 써주세요”라며 웃었다. ▲핵타에게 미안하다고 해야겠어요 = 결승타를 치고도 웃지 못한 ‘안방마님’ 김민식이었다. 김민식은 지난 18일 LG와의 홈경기에서 3-3로 맞선 8회말 2사 1·2루에서 안타를 때리며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그러나 김민식은 경기가 끝난 뒤 “핵타

에게 미안하다고 해야겠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김민식은 이날 1회초 실책에 이어 3-2로 앞서고 있던 6회초에도 실점으로 연결되는 패스트볼을 기록했다. 김민식과 호흡을 맞췄던 헛타는 3-3에서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김민식은 “안타는 운이 좋았다. 최근 선발투수들의 승리를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안 되더니 =

KIA의 필승조 김윤동은 지난 18일 LG와의 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됐다. 이날 3-3이었던 8회초 2사 2루에서 박정수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김윤동은 안익훈을 상대로 헛스윙 삼진을 잡고 급한 불을 껐다. 그리고 KIA가 8회말 4-3으로 리드를 잡은 뒤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승리투수가 김윤동에게 돌아갔다. 김윤동은 “그렇게 승리투수가 되고 싶을 때는 안 되더니 공 5개 던지고 승리투수가 됐다”고 웃었다. 김윤동은 지난 4일 SK와의 경기에서도 3타자를 상대한 뒤 승리투수가 되면서 헛타와 함께 나란히 2승을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민식 적십자사 홍보대사



KIA 김민식(사진)이 KBO와 대한적십자사가 2018년 KBO리그 10 구단을 대표하는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LG 박용택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넥센 김민성은 2014

년부터 5년 연속 홍보대사를 맡는다. 두산 최주환도 지난해에 2년 연속 홍보대사가 됐다. 이 밖에 롯데 김원중, NC 구창모, SK 김동원, 한화 허주석, 삼성 양정섭, kt 엄상배이 각 팀을 대표해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홍보대사로 선정된 선수들은 대한적십자사 홍보작하는 사회공헌 홍보영상에 참여한다. 촬영된 영상은 구장 전광판, KBO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SNS 등 공식 홍보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중일 LG 감독 ‘사인 훔치기’ 공식 사과



LG 류중일 감독이 20일 KIA와의 경기에서 앞서 취재진을 만나 전날 경기에서 벌어진 ‘사인 훔치기’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연합뉴스

LG 트윈스 류중일 감독이 ‘사인 훔치기’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류 감독은 1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취재진을 만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태가 일어났다. 선수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력 분석팀에서 오버를 한 것 같다. 현장 책임자로서 정말 죄송하다”며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LG는 전날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KIA 구종별 사인’이라고 언급된 인쇄물을 라커룸과 덕아웃으로 향하는 복도에 붙여 놓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인쇄물에는 ‘우타자 기준 몸쪽(검지 왼쪽 터치) 바깥쪽(검지 오른쪽 터치), 커브(검지, 중지), 슬라이더(검지, 중지, 새끼) 체인포크(검지, 중지, 약지, 새끼)’ 등이 담겨있었다. KIA 배터리가 주고받는 사인이 그대로 적혀있었던 만큼 ‘사인 훔치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인 훔치기’ 논란은 여러 차례 있었지

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또 리그 규정에 위배 되는 만큼 파장이 커졌다. KBO리그 규정 제26조 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 행위 금지 조항 1항에는 ‘벤치 내부, 베이스코치 및 주자가 타자에게 상대 투수의 구종 등의 전달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됐다. 2항에도 ‘벤치 외 외부 수신호 전달 금지, 경기중 외부로부터 페이퍼 등 기타 정보전달 금지’ 내용이 있다. LG는 류 감독의 사과에 앞서 신문법 대표 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LG는 사과문을 통해 “프로야구를 사랑해주는 모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야구팬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었음을 통감한다”며 “LG는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고, ‘클린 베이스볼’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구단으로 거듭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

류현진 등판일정 또 조정 LA 리치 힐 부상자명단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베테랑 우완 선발투수 리치 힐이 부상자명단(DL)에 오르면서 류현진의 등판 일정이 또 조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MLB닷컴 등 외신은 다저스가 19일 왼쪽 가운뎃손가락 염증을 앓고 있는 힐을 열흘짜리 부상자명단에 올리고 좌완 불펜 애덤 리베라토어를 콜업했다고 보도했다. 다저스는 힐의 부상자명단 등재를 16일자로 소급 적용했다. 따라서 힐은 이르면 오는 26일 복귀할 수 있다. 힐의 복귀 일정에 따라 다저스의 선발 로테이션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 힐은 오는 21일 워싱턴 내셔널스와 버리는 홈 3연전 첫 경기에 등판할 예정이었다. 다저스루닷컴은 오는 20일이 다저스의 휴식일이기 때문에 16일 애리조나전 승리를 이끌었던 클레이턴 커쇼가 나올 휴식을 취하고 21일 등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류현진과 알렉스 우드가 각각 나흘을 쉬고 22일, 23일 워싱턴전에 등판할 수 있다. /연합뉴스

아계임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 선발전

여수선 롤러스케이트 선발전

‘길거리 스포츠’ 스케이트보드가 태극마크의 주인을 찾는다.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은 오는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파견할 스케이트보드와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종목 국가대표를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스케이트보드 선발전은 오는 29일 경기도 용인 죽전 스케이트보드 파크에서, 롤러스케이트 선발전은 같은 날 전라남도 여수 진남체육공원 롤러경기장에서 열린다. 스케이트보드는 스트리트 부문과 파크 부문에서 총 8명, 롤러스케이트는 E(제한 경기) 20,000m 남녀 각 2명 등 총 12명을 선발한다. 스케이트보드 경기는 여러 기술이나 난간을 놓고 화려한 기술을 펼쳐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도 스케이트보드 국제대회에 한국 대표 선수가 참가했지만, 아시안게임과 같은 종합대회에 출전

하는 국가대표를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케이트보드는 올림픽의 미래와 흥행, 젊은 세대의 동기부여를 노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CO) ‘아젠다 2020’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그에 따라 이번 아시안게임에도 정식종목에 들어갔다. 롤러스케이트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8년 만에 종합대회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한국 스피드 롤러스케이트는 광저우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한국의 종합 2위 달성에 기여했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김천 종합 스포츠타운 롤러경기장에서는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롤러(스피드)경기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기존 국가대표 선수와 차세대 유망주 등 600명이 넘는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다. /연합뉴스